



대성학원 선배들이 들려주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

그리고

합격의 순간

강남대성기숙학원

자연 1반 임상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

### < 자기소개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20학번으로 입학한 전기정보공학부 임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험생활을 강남대성학원 기숙학원에서 했습니다.

### < 합격 소감 >

처음에는 최초 합이 될 줄 몰라서 약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구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수험생활이 일단 끝나서 홀가분한 마음도 있었고 아껴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한 기분도 들었고 힘든 생활을 같이 했던 동생들, 친구들이 한 번 더 도전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 재수 결심 이유 >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다, 인공지능 쪽으로 제 직업을 정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제 모의고사 성적은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러가지고 언젠가는 이 성적이 오르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 년을 보냈는데 결국 수능은 제 실력대로 보게 되었고 불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 < 강남대성기숙학원의 첫 인상, 분위기 >

맨 처음에는 학생들이 같은 색깔의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되게 신기했어요. 좀 생활하다 보니 '아, 이런 곳이 세상에 존재 하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떠들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생활담임선생님이 계셔서 학생들 정숙 시키고 밥도 정해진 순서대로 먹고 그러는 것을 보고 '와, 이런 생활을 할 수도 있구나 세상에' 되게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 < 강남대성기숙학원의 장점 >

일단 첫 번째로 우수한 선생님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친절하시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에 도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업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께서 교무실에서 상주하시면서 학생들의 질문을 항상 받아주시고, 제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양질의 콘텐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쓸개, 해시태그2750, 강대모의고사 등 이런 콘텐츠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기출문제가 아닌 익숙한 유형이 아닌 새롭게 출제된, 저희들을 위해서 경향에 맞춰 새롭게 출제된 문제들을 푸는 것 자체도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곁에 우수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는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과목을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되면 제가 마침 그 과목이 약하다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한 학습법, 본인의 노하우 그런 것을 들을 수 있고 서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 짜여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드시피 콘텐츠도 좋은 것들을 학원에서 나눠주는데 그 콘텐츠를 학생들이 소비를 하는 개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료를 풀고 스스로 푼 것을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 < 관리시스템 >

우선은 모의고사 같은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풀고 그 콘텐츠를 다뤄주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제가 푼 문제를 모르시고 그러시면 선생님께서 문제 이해하시고 피드백을 주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이 그것으로 수업을 하시고 미리 접해보시다 보니까. 문항에 대한 이해도 높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 저희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 < 재수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

현역 때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문제 풀고 모의고사를 풀면 수능을 잘 보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수능을 잘 못 보고 나니까 이런 공부법이 잘 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반에 공부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선생님들과의 상담,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스스로 어떤 단계에 대한 생각을 했다고 해야 하나, 문제풀이는 사실 제 개념에 대한 구멍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목적이 저의 구멍을 찾는 것. 그래서 어떤 의무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저의 구멍을 찾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런 구멍을 발견하면 최대한 해결하려고 선생님들께 여쭙거나 모르는 문제를 그렇게 최대한 구멍을 메꾸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 < 재수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

나태해지려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방해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런 캠퍼스를 밟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의무감에 문제를 풀고 그냥 구멍을 귀찮아서 안 메우려고 넘어가려는 그런 나쁜 마음가짐들을 바로잡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 < 시간 관리 노하우 >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일단 그날 모의고사 복기를 해가지고 모의고사 실전에서 어디서 막혔는지, 어떤 생각을 할 수 없었는지, 어디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이런 점들을 그 당일에 체크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날만 되어도 많은 부분들을 까먹게 되고 그리고 실전적인 느낌은 당일에 하는 게 최고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당일에 바로 피드백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과목에 몇 시간을 투자한다 어떤 과목을 언제 한다 이런 건 솔직히 딱히 없었어요. 다이어리 쓰는 것도 선호하지 않았고 하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게 되고 어떤 과목들은 며칠 동안 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대한 하루에 모든 과목을 보자, 분량이 얼마나 되든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 < 자신만의 학습 방법 >

저는 국어나 수학 같은 영역들을 세부 영역에 따라 공부법을 달리했는데요.

### [국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개념을 잘 가르쳐주시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고 착실하다져진 개념 위에서 문제풀이를 해서 중간 과정에서 생겼던 오개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문제 풀이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제가 문학이 구멍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개념어를 스스로 기출을 통해서 정립하고 이 선지는 어느 범위부터 어느 범위까지 맞는 것이고 이 선지는 틀릴 수밖에 없는 선지라는 것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었거든요. 문학이라는 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범위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피드백을 구조 받으면서 어떤 선지, 어떤 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비문학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현역 때는 생각 없이 글을 읽었고 그런 습관이 수능 때까지 갔는데 1등급이 간신히 나오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읽으시는지 저희보다 경험이 많으시고 많은 학생들을 봐오셨고 많은 글들을 읽으셨고 하니까 숙련된 분들이랄까요.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읽으시는지를 받아들이려고 많이 애쓰고 제가 시험 때마다 아까 말했던 강대 모의고사나 간쓸개 이런 콘텐츠들을 접하면서 선생님들도 그것들을 접해보시면서 어떤 글들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어떻게 읽었다, 이 글에서 어디가 안되었다는 것을 선생님들께 즉각적으로 선생님들께 피드백 받으면서 점점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글을 읽게 되게 노력한 것 같습니다.

## < 취약과목 학습법 >

국어가 제일 취약했던 것 같고 과탐 과목 중에는 지구과학 II 과목을 올해 처음 했었는데 취약하다면 취약한 과목이죠. 처음 시작했으니까. 저는 지엽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중요하고 어디서부터는 몰라도 된다는 이런 범위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몰랐는데 싶은 것들은 노트에 정리하면서 틈날 때마다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이동 수업 때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자투리 시간에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II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어떻게 이런 데서 막혔는데 막힌 문제들에서 어떤 개념들이 제가 부족했는지 어떤 개념을 제가 머릿속에서 끌어오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피드백 하면서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했는데도 만점이라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시기별 학습법 >

6평 전 6평과 9평 사이, 9평 후 이런 시기는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문제풀이를 통한 구멍 찾기와 그 구멍을 메우면서 실력이 상승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기별로 그렇게 공부에 차이를 두진 않았습니다.

## < 가장 도움이 되었던 콘텐츠와 활용법 >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간쓸개입니다. 왜냐하면 EBS같은 곳에서 나오는 다양한 독서 제재들을 폭넓게 다뤄주고 글의 스타일 자체도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유형부터 또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은 글의 유형까지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하는 유형, 이런 유형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양 자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시간이나 질문을 하러 가면 잘 다뤄주시기 때문에 어떤 글을 못 읽었고 어떤 생각을 못 했고 어떤 유형에서 약하고 이런 것들을 피드백하기에 거의 최고의 콘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시태그2750입니다. 일단 취지 자체가 정말 좋아요. 킬러 21, 29, 30을 풀기 위해서는 그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을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야 한다 이런 취지도 굉장히 좋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킬러들을 풀기 위해 어쨌든 거쳐가야 하는 그런 단계들이고 그런 문제들을 빨리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 수학 실력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만 치중할 수 있는데 학습과정에서, 쉽거나 중간 난이도 그런 문제들을 접해본다는 것 자체도 좋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 < 재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 >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불쑥불쑥 이번 수능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잘 못 보면 어찌지 하는 생각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이 불확실한 건 맞지만 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불안을 지금 느끼기보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실력을 기르는 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것만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 < 재수 생활 중 가장 즐거웠던 순간 >

저와 같은 상황인 친구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밥 먹으면서 혹은 자기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수능 끝나고 뭐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순간순간이 즐거웠던 것 같고 그런 즐거웠던 순간들로 수험 기간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 < 후배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

지금 예상치 못한 사태 때문에 개학도 연기되고 온라인으로 개학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 학원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 학원도 개강이 연기되고 수업도 들을 수 없고 자습시간만 갖고 이런 기간인 것 같아요. 이런 기간인 만큼 공부의 의지가 약한 친구들은 지금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열심히 학습에 임한다면 이번 수능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런 공허한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